

같은 공장서 비슷한 사고... 유통업계, '안전불감증' 도마위

끼임, 화재 등 사고발생 잦아져 중대법 1호 부담... 경각심 최고조 안전관리시스템 등 재발방지 사활

최근 한달 사이에 유통업계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같은 달 23일 사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 끼임 사고를 당해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사고 이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미흡한 대처에 논란이 일면서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일에는 농심 부산공장에서 작업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피해자는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팔도 함께 들어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는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가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심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생산동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직원을 철수시킨 뒤 경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72명)', '칼림·뒤집힘(54명)', '물체에 맞음(52명)' 순이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49인 사업장이 352명, 5인 미만이 318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80.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168명에서 15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고 발생이 잦아 유통업계가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SPC 사태에서 봤듯 불매운동 등 그 파장이 크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1호' 프리마켓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작업을 벌이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바꿨고, 별도 안전관리팀을 신설해 전



지난 9월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스1

문가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엔 안전 관련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했지만, 최근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내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외부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이마트는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고,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 8월 전 점포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의무사업장인 본사와

백화점 점포는 물론, 법적 의무가 없는 점포에도 모두 배치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점포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 이후 경각심이 커지면서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사전 안전교육과 시설물 점검으로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협상 진행중이라더니... 시간끌기 '꼼수' 논란

푸르밀 재매각 추진

신 대표, 노조에 재매각 시사 대리점주에는 계약종료 통보

회사의 재매각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던 신동환 대표이사의 해명과 달리 푸르밀이 낙농진흥회에는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고,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지난달 31일 낙농진흥회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이달 1일부터 원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푸르밀은 가공유에 사용하는 원유 80%를 낙농진흥회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같은날 500여개 대리점에는 "경영상황 악화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22년 11월 30일자로 유가공품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당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모든 계약을 종료하고자



전국화농노동조합연맹 푸르밀 노동조합이 정리하고 철회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하며 이후에는 당사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각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는만큼 당초 사업종료 및 정리하고 계획과 연관된 예정된 수수료라는 게 사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측의 재매각 주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 31일 신동환 대표이사는 노조와 2차 교섭에서 재매각 추진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당시 푸르밀 노사는 서

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에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중재 하에 2차 교섭을 가졌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당일 교섭 후 "신동환 대표로부터 회사 매각을 의의 중이라는 대답을 받았다"며 "다만 인수 업체에서 대외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인수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대로 재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푸르밀의 사업 종료는 400여명의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전국 대리점과 낙농가, 배송기사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파장이 더욱 크다.

한편,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 기한은 당초 공고한 오는 이달 9일에서 사업종료 예정날인 이달 30일로 미뤄졌으며 푸르밀 노사는 4일 오후 2시 3차 교섭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삼양식품-서강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손

연구소 설립·공동연구 업무협약

삼양식품이 서강대학교와 함께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공동연구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전날 서강대 총장실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장재성 삼양식품 부사장, 전병우 삼양식품 전략운영본부장, 김홍범 삼양식품 식품연구소장, 심종혁 서강대 총장, 김순기 서강대 대외부총장, 정옥현 서강대 대외교류처장, 최정우 서강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강대 리치별관(RA관) 재건축 및 연구소 개소 ▲식품, 생물공학 공동연구 추진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응용기술력 확보 등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식품산업을 비롯한 미래 생물공학 기술의 발



지난 2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오른쪽)과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식품

전을 위하여 산학 간의 긴밀한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기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삼양식품과 서강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통업계 신제품

동원F&B 뉴트리플랜 반려견용 습식캔 '홀릭' 2종

동원F&B의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은 반려견용 프리미엄 습식캔 '홀릭' 2종(흰살참치&야채과일, 닭가슴살&야채과일)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홀릭'은 30년 이상 펫푸드를 만들어 온 동원F&B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이 먹는 식재료와 동일한 원료를 담

아 만든 100% 휴먼그레이드 간식 제품이다. 국내 최대 수산기업 동원산업이 직접 잡은 신선한 참치와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은 물론 감자,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10가지 야채와 과일을 담았다.

동원F&B 펫푸드 전문 연구원이 설계한 영양기준을 바탕으로 한 캔당 2억 마리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반려견의 장 건강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 '시니어마켓' 개설

노인일자리 사업단 생산품 구매 촉진 16일까지 반값할인·무료배송 이벤트

홈플러스가 3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노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니어마켓'을 온라인에 개설하고 할인 이벤트를 연다.

'시니어마켓'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서 생산한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등을 노인이 공동 운영하고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홈플러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며 품목 카테고리는 식품, 일상용품 등이다. 오는 16일까지 전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 해준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시니어마켓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입점 심사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해당 상품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